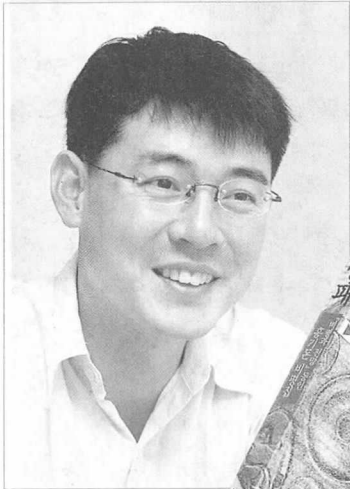


“치열한 자기성찰이 비평의 본령이다”

《페르세우스의 방패》 펴낸 홍기돈씨



홍기돈씨



백의/A5신/352면/13,000원

2000년 들어 문단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문학권력 논쟁’이다. 《비평과 전망》 동인으로 활동하며 이 논쟁의 ‘논객’으로 참여해온 홍기돈씨(32, 문학평론가)가 그 동안의 비판적 글쓰기를 보여주는 첫 평론집 《페르세우스의 방패》(백의)를 펴냈다. 1999년 등단 이후 비교적 빨리 첫 평론집을 상재한 그는 이 책에서 모든 권력이 악일 수는 없으며 올바르게 행사되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책에서 문학의 사회적 사명과 역할을 고민하는 것을 가로막는 문단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는다.

자유로운 글쓰기 억압하는 권력 경계해야

“비판적 글쓰기를 둘러싼 논쟁은 누가 권력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권력이란 공동체의 위계질서 속에 당연히 내재하는 속성이거든요. 문학의 속성에 권력의 요소가 존재하는 건 인정하지만, 문학의 본령을 억압하는 것들을 경계하자는 것이죠.”

그는 바람직한 논쟁은 비평에 내재한 권력의 속성을 공격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문학의 본령이 인간을 탐구하는 영역인 만큼 내적 깊이의 문제를 감싸안고 나아가 한다는 말이다. 그

러면서 어떻게 자기성찰을 이끌어내야 하는가에 주목한다. 스스로 반성의 중심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성’의 외피를 둘러싼 ‘비판’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성 없는 비평은 인문정신이 거세된 채 앙상하게 메마른 사회과학에 불과합니다. 사실 1990년대 문학비평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반성을 모르기에 전략 구사의 효과에만 매달려 문학 본연의 자리를 조금씩 자본에 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동안의 문학 논쟁이 현실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바람직한 논쟁이란 각기 다른 정치성의 지향을 인정하면서 그 논쟁이 현실과의 긴장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계를 뛰어넘는 글쓰기 지향해

이 책의 《비평과 전망》이 우리 사회의 문학제도 문제를 짚었다면, 인터뷰 형식을 취한 〈작가를 찾아서〉는 문학과 삶에 대한 문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그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확장하며, 시간과 함께 깊어지고 성숙하는 것이 문학의 자리라고 말한다.

〈위버텐쉬의 초상〉에서는 비평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문학 텍스트에 대한 비평을 시도했다. 특히 1991년 5월 투쟁의 경험과 이후 변화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사회적 체험을 바탕으로 동

비판적 글쓰기에서 권력의 유무를 묻는 것은 논쟁의 핵심을 벗어난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다. 바람직한 논쟁은 비평에 내재한 권력의 속성을 공격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의 중심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홍기돈씨는 이 책에서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방점을 찍고 비평이 인문학 본질로 회귀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세대 작가인 김영하·백민석·한강의 글을 분석한 부분은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온 비평가의 안목이 잘 드러난다. 또한 이응준과 은희경에 대한 비평에서 그는 자질과 가능성 있는 두 작가가 우리 문단의 왜곡된 제도와 억압적 구조 때문에 문학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이를 1990년대 문단의 한계와 연결지어 성찰했다.

“1990년대 문단은 ‘신세대 담론’과 ‘새로운 문학’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론자들’의 성급한 과거청산 욕구는 1980년대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계승의 과정을 건너뛴으로써 문학적 전통의 단절을 가속화시켰죠.”

《비평과 전망》 동인을 결성하면서 “문학의 내부에 머물지 않는, 경계를 뛰어넘는 글쓰기”를 비평적 화두로 삼았던 그는 이번 평론집에서 기본적으로 문학과 삶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앞으로도 문학의 외부적 여건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밀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기성세대가 구축하고 있는 잘못된 질서를 젊은 세대가 비판하며 대체해가는 ‘흐름’이 유지될 때만 자정작용이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논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박용순 기자